애경

2월 사업 계획서

발신 : 여성 자주 세상으로 달려가는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수신 : 빛나는 단대 여학생회

1. 총여학생회 1월 사업 평가

1월은 한해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간고히 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간부의 결합이 되지 않아서 1월을 살데에 대한 기조를 잡지 못하고, 회장, 부회장만으로 단위의 많은 고민을 받아안고, 많은 고민들로 벅차하며 보냈던 한달인 것 같다.

1) 총여학생회의 조직생활과 교양

일단 총여 내부의 생활을 평가해 보면, 간부들이 결합한지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2명만으로 가져가서 조례사수를 잘 하지 못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였고, 시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전투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1월말 간부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으로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과 애정을 나누었으며 회의 또한 진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1월의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간부들의 단결력이라는 점은 잘 진행되었던 것 같다.

교양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이루어진 것이 없고, 1월초 여성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97년에 맞게 고민하고자 했으나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교양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고민을 가져오지 못했다. 2월에는 1월에 못다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내실을 기하는 달이 되어야겠다.

2) 단위에 대한 결합과 교양

1월에는 단위에 가 있었던 시간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다. 결의를 내던 단대 간부들을 모두 만나고,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단위 간부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기본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교양들에 있어 단여에서 소화시키기 어렵기에 총여가 그 부분들을 담보해내어야 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커리를 내려주는 것 이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단위간부들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교양해야할 필요를 많이 느꼈었다.

1월말부터는 단대간부들에 대한 총화가 어려워지고, 올해 크게 제기되었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내는데 너무나 미흡했다.

3) 총학생회 간부학교

총학생회 간부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운위에서 크게 제기하고, 거기에 또한 여학생회의 결합 필요성을 느끼며 중앙운위들까지의 참가와 총여학생회만의 간부학교를 기획했다.

그러나, 그 간부학교에 결합한다는 것이 단순한 참가가 아닌 우리의 내용을 과학생회 사람들에게 풀어낼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길게 하지 못하고, 총노선 토론또한 전날 끝냈었다.학생회 사람들에게 제기해야할 내용(학생회와 여학생회와의 관계) 또한 많은 고민이 있은 후 진행되어야 했는데, 총노선에 대한 비중만 강조하다보니 내용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

총노선에 대해 발제한 부분에 대해 여학우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받아안는 것인만큼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준비에 있어 많이 미흡했던 점 또한 많지만, 과학생회사람들에게까지 총여학생회의 한해 총노선에 대해 알려내고, 학생회사람들에게 여학생회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단여가 없는 단대에서 총여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단대 간부들에게 제기받으며 올해의 단여건준위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총여가 중앙이라는 인식을 더 높이게 되었다.

2. 2월 사업 계획

1) 중심기조

계획된 조직생활속에서 여학생회의 조직력을 담보하고, 계획된 교양으로 사상을 담보해내어 경북대 여학생회의 집중단결로 새내기와 학우들에게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자.

2월은 여학일꾼 교양학교를 통해 우리의 사상을 과간부들에게까지 합의해내며 이것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1월에 못다했던 내실을 다지며, 새내기를 맞이하는 시기인 만큼 총여학생회가 대중조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해마다 단여 간부들이 활동가인가 하는 점을 하는 점이 제기되어왔다. 97년 2월은 1월에 못다했던 단여간부들에 대한 교양을 새터를 준비하고 대동학교를 준비하는 빡빡한 일정속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조직생활에서부터 단여간부들의 결의를 높여 계획된 생활로 조직력을 담보해 내어야 하겠다.

또한, 새내기들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내용을 기초적으로 풀어내며 대중조직으로 서 나가는 시기인 만큼 혁신하는 모습으로 2월에 임해야 하겠다.

지금 현재 경북대 여학생회의 역량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꼼꼼히 풀어가며 단여와 총여와의 관계를 간고하게하여 한해동안 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1월에 단여간부들을 총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현재 그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1일 1간부 만나기를 2월에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한다.

2) 구체적 일정

2월 9일까지 총노선 2차 토론
2월 10일, 11일 여학일꾼 교양학교
2월 13일 새터 2차 회의
2월 16일 총노선 3차 토론, 완성
2월 17일 대동학교 1차 회의
2월 19, 20, 21일 수강신청
2월 22, 23, 24일 새내기 새로배움터 (지리산)

97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대한 총여학생회 기조

발신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새터 준비단
수신 : 단대 여학생회 새터 준비단

새내기에 대한 규정

새내기들은 '신세대'라는 사조 속에서 다양함을 추구하며,

수능과 논술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방면의 정세에 대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있으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집과 학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사고를 올발른 방향으로 가질 수 없다.

또한, 96년 연대항쟁에 대해 언론과 학교에서의 이념교육을 통해 학생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매스컴에서 보는 모습들만을 보며 사회 속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고민하지 못한다.

예전보다 훨씬 개방된 생각과 환경속에서 일찍부터 연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연예를 통해 자신을 찾기보다 연예 그자체에 매몰된다.

여성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지금 성에 따라 차별하던 것이(예를 들면 담배) 많이 없어졌으나 아직도 자라온 환경에 의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싸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인간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많은 합의를 가져오지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체화된 여성문제가 아니기에 그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녹여낼 고민을 하지 못하고, 그 대안들을 자신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인식까지는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97년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가지는 의의

이런 다양한 새내기들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는 새내기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키워내어 올바른 대학인의 모습을 가져 오게 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의 모습은 상대평가제, 학부제 등을 통한 철저한 경쟁이데올로기로 대학인을 개개의 삶만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97년의 정세에서 제기되는 김영삼 타도와 전민항쟁이라는 것을 투쟁하는데 새내기또한 주체임을 각인하고, 새내기들의 의리와 청년학생으로서의 순결성, 자주성을 고양시키며 단순한 주입이 아닌 새내기들과 올바른 대학과 대학인의 상을 합의하는데 새로배움터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른 인간관이기에 새내기들에게 대학과의 첫 만남속에서 그 인간관에 대한 것을 합의하며, 또한 올한해 놓치지 말아야 할 바른 대학인의 모습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새내기들과의 첫만남이기에 여성문제라는 것에 대한 초보적 인식과 이후 고민할 지점들을 제시해 주고, 총여학생회라는 것이 여학생들의 대중조직임을 인식시키게 해야 한다.

기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아직 가안임)

바른 인간관을 가진 바른 대학인

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해마다 새로배움터에서 제기되는 내용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며, 푸는데도 또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강연 내용도 여성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내기들에게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의 초보적 인식을 가져오기 위해 인간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강사는 대구 여성회의 한분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후 내용 제출)

전체 중앙판인 학생회판에 총여학생회판을 결합시키고 그 내용도 또한 이후 제출할 것이다.